

경영난 빠진 지역 중소기업 살린다

캠코 광주전남본부·광주상의 '구조혁신 지원 MOU'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운영, 법정관리 기업 자금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난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들을 살리는데 앞장선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상공회의소는 4일 캠코 지역본부에서 '기업의 성공적 구조혁신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영난을 겪는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 중소기업 재기 지원= 양 기관은 ▲캠코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한 기업과 자본시장 투자자 간 연계 지원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등 경영정상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통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임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또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채납조세·부실채권 정리·온비드 분야의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창의 캠코 광주전남본부장은 "캠코와

광주상의 협약으로 지역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혁신센터로 투자자·기업 연결 = 문재인 정부의 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캠코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해 투자대상 기업을 찾는 자본시장 투자자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투자매칭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에는 지난 10월 현재 20개 자본시장 투자자와 473개 기업 회원들이 등록했으며, 투자매칭 3건, 회생기업지원(채권인수) 35건, 공적 재기지원 안내 65건 등 총 119개 기업을 지원했다.

캠코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성장성이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인수해 유통성을 공급하고, 임대대 및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신용도 향상 및 금융 이자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지난



홍창의(왼쪽) 캠코 광주전남본부장과 유옥진 광주상공회의소 전무는 4일 캠코 지역본부에서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 광주전남본부 제공>

2015년 5월 기업자산 인수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8개 기업, 4901억원 규모의 자산 인수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다.

◇법정관리 기업에 운전자금 지원= 캠코는 또 '기업지원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절차기업 3개 사에 최대 2년간 총 17억원의 DIP금융을 공급하고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지원금융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회생전용 지원(DIP-Debtor in Possession) 시스템' 마련을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DIP는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캠코 기업지원금융의 첫 번째 DIP금융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개 기업은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및 채권인수 등 캠코 기업지원제도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회생기업이다. 기업지원금융은 신규자금 공급을 통해 지원기업들이 원자재 구입, 이행보증금 납입 등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68.89 (-15.18) ↓ 금리(국고채 3년) 1.41 (-0.05)
- ↓ 코스닥 625.27 (-4.31) ↑ 환율(USD) 1194.30 (+7.10)

광주은행,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국내 은행권 최초 '고객 정보보호에 최선'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인터넷·웹·모바일뱅킹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과 지지체 금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받았다고 4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제도를 하나로 합친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다.

ISMS-P 인증을 취득하려면 정보보호 관련 80개, 개인정보보호 관련 22개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총 102개 기준에서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인해 비대면거래인 인터넷·웹·모바일뱅킹 모든 부분에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했다.

또한 광주은행이 운영 중인 광주시, 전남도 지지체 금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별도로 받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성과 금고 시스템 서비스의 안전성까지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됐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은행권 최초 ISMS-P 인증으로 광주은행의 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안정성에 대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이 4일 조선대 학생을 대상으로 'FTA 시대 관세행정 역할' 강연을 하고 있다. <광주세관 제공>

광주세관, 조선대 학생 대상 'FTA 시대 관세행정' 특강

전문인력 양성·취업난 해소 도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4일 조선대 학생을 대상으로 'FTA 시대 관세행정 역할'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이 연단에 나서 관세청과 광주세관이 소개하고 'FTA 체결현황 및 확산배경', 'FTA시대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방안', 향후 전망 등을 강연했다.

강연에 참여한 경상대학 무역학과 학생 80여 명은 강연 뒤 질의·응답과 진로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김 세관장은 "무역학과 학생으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가 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광주본부세관은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지속적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광주 세탁기라인 회로기판으로 교체 검토

위니아대우, 베트남이전 대체 방안...프리미엄 냉장고 라인 강화

에 베트남 이전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위니아대우는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공장의 세탁기사업부 전체(3개 생산라인)를 계열사인 위니아담체 태국법인 인건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태국에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기공공사까지 돌입한 위니아대우는 2020년 초부터 세탁기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기존 국내의 세탁기 생산인력 80여명을 광주공

장 내 프리미엄 냉장고 라인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니아대우 노동조합은 앞서 지난해 대우위니아그룹에 인수되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던 터라 생산라인 이전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이전을 반대했다.

위니아대우 노사는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광주시도 중재에 나섰다. 사측은 노사 대화에서 세탁기 생산라인

을 이전하는 대신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PBA 물량을 광주공장 으로 돌리는 안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세탁기라인의 해외 이전은 불가피하다"면서 "대신 광주공장은 프리미엄 냉장고 생산라인을 강화하고, 계열사들이 생산 중인 인쇄회로기판 라인을 광주로 이전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냉장고 라인의 경쟁력에 대해 우려하지만, 가전회사의 마지막 자존심이 프리미엄 냉장고"라며 "이를 버린다는 것은 가전회사로서 문을 닫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회사는 프리미엄 냉장고로 승부를 건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중기부, 중기 규제혁신 시각지대 없앤다

공공기관 규제어로 49건 개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임대료나 영업비 부담을 덜고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규제 49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기관별로 기업 규제에 대한 애로를 상시 발굴해 처리할 수 있는 '기업성장상담센터(가칭)'

가 설치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현장감감 규제'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주요 개선사례 49건을 이날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나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사학연금공단

은 보유임대공실을 활용해 교육서비스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임대료·관리비 등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경미한 사유로 부정당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1인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REMEMBER & HISTORY

- 1인 크리에이터, 인기·수익 양 날개로 비상
- 나만의 콘텐츠야 떠나라
- 크리에이터 꿈꾼다면 눈과 귀를 열어라

2019 문화계 결산

- 문학: 조정래, 송순, 동주문학상 등 의미있는 수상
- 미술: 소통 전시로 각광받은 디자인비엔날레
- 공연: 세계스포츠 축제 무대로 동성했던 여름 공연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성과 공전의 예술도시 독일 드레스덴

클릭, 문화현장! 문화강성이 발효되는 공간 담양해동문화예술촌

강재운 시인의 남도 성곡 토속음사-우여우 남도의 별미 '갑오징어 돌미나리 초무침'

예향 초대석

우리 감성 무르익은 소리꾼 장사익

"노래에 인생 스며들면 깊은 울림"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자유를 향해 질주한 시와 생 서울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전시 화제

ACC '공작인: 현대조각과 공예 사이'전

유현준의 도시건축! 모닥불, 건축 빅뱅 불 지폈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바우하우스의 부처' 클레, 재밌는 예술교육 틀 다졌다

베트남의 대중문화 X파일! 아역 배우의 명암과 현주소

승년 기획 안녕 2019, 해넘이 해맞이 명소

역사와 예술의 불꽃 보성 빌 여행